

문화

어딜가야 스파이더맨이 피자를 주냐구? 그야 당연히 미술관이지

TV·게임기 비켜! 미술관·박물관서 보내는 알찬 겨울방학

‘3D 트리아트’ ‘지구를 담은 사진’ ‘문화유적과의 동행’ ‘예술가 24인의...’ 등 전시 풍성

“애들아! 겨울방학이라고 방 안에서 인터넷 게임만 할 거니? 볼볼 털고 일어나 미술관으로 가면, 작품 감상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겨울 방학을 맞아 평면회화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기한 3D 트리아트 전시회가 열리는 등 미술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또 광주·전남의 역사적 의미와 현주소를 느낄 수 있는 전시회와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전 등 교육적 내용도 알차다.

광주주니어문화관 금호갤러리는 오는 2월 26일까지 ‘3D 트리아트 광주특별전’을 연다. 트리아트는 빛의 굴절과 반사, 원근과 음영을 이용한 착시현상으로 2차원의 평면회화를, 마치 3차원의 입체처럼 느끼게 해주는 새로운 감각의 미술전시다. 이번 전시에서는 시각적 착시효

과를 이용한 회화·일러스트레이션·조형물·설치작품·영상·뉴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와의 유쾌한 만남을 즐길 수 있다. 막 벽을 뚫고 나오는 로봇과 대형 날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아찔한 건물 옥상 위에 있는 것 같은 경험도 선사한다. 또 공중을 날아다니는 스파이더맨이 가져다주는 피자를 양손으로 받아보는 착각이 들게 하는 작품 등 흥미로운 요소가 많다. 입장료 성인 1만2000원 초·중·고교생 1만원, 유치원생 9000원. 문의 070-4177-3132.

내셔널 지오그래픽 한국판 발행사인 YBM/Si-sa사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창간 10주년을 맞이해 내년 2월 26일까지 광주문화예술회관 별관 전시실에서 ‘지구를 담은 사진-Life&Naturer’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지구와 생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사진들을 선보인다. 아름다운 자연과 동·식물, 파괴되어 가는 환경, 환경 재건을 위한 노력 등의 주제를 담은 180여 점의 사진들이 펼쳐진다.

전시된 작품은 미국 국립지리학회와 콘텐츠와 결합된 이들 작품은 예술적 감동과 학문적인 정보를 함께 전달해준다.

‘최초의 컬러 수중 사진’을 비롯해 ‘알래스타 그레이엄 벨과 관련된 사진’ 등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게재돼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됐던 사진들과 역사적 의미를 가진 사진들도 전시된다. 입장권 6000~1만원. 문의 062-513-7992.

국립광주박물관은 오는 24일 우리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을 지역 미술단체인 광주사생회 회원들이 화

쪽에 담아 선보이는 ‘문화유적과의 동행’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조규일·이우진·문명호·김종욱·정성복·장세관·김재균 등 광주사생회 회원 50여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이들은 청동기시대 고인돌을 비롯해 천불전탑의 화순 운주사, 순천 선암사의 승선교, 담양 소재원 등을 화폭에 담았다. 문의 062-570-7052.

광주시립미술관도 오는 3월 25일까지 광주의 정체성에 대해 보여주는 ‘광주를 품은 예술가 24인의 광주 이야기’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서양화 작품과 1992년 미술관 건립 당시의 기증작 중 서양화 24점을 골라 선보인다.

강연균·강용운·김영태·김재형·김종일·김환기·노의웅·박상섭·박



3D 트리아트 광주특별전 ‘스파이더맨 피자배달’

영선·송필용·양수아·양인옥·오지호·오승우·오승운·우제길·임직순·정상섭·정승주·조규일·진양욱·진원장·최영훈·황영성 등이 지역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다.

한국적 인상주의 미학을 개척한 구상회화의 선구자 고 오지호 화백의 ‘설경’과 한국 추상회화의 대가 양수아의 ‘작품’ 등 호남 현대 화단의 뿌리를 엿볼 수 있는 대작들이 대거 출품됐다. 또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중견작가들의 남도의 화려한 색과 다양한 실험정신이 결합된 작품들도 눈에 띈다. 문의 062-613-7140.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폴 니콜렌 작 ‘북극곰들’

사진으로 보내는 ‘천사의 편지’

조세현, 16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천사들의 순박한 모습이 카메라 렌즈에 담겼다. 광주 신세계갤러리는 10~16일 사진작가 조세현이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들과 스타들의 모습을 함께 찍은 사진을 선보이는 ‘천사의 편지’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이민호·이준익·최지우·정혜영·김해수·이승연·염정아·투애니원·닉쿤·이서진·박시후·티파니·씨앤블루·장우혁·신봉선 등 배우와 가수, 영화감독, 아나운서 등이 참여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혼모의 아이들, 장애를 가진 아이들과 입양 가족들, 미혼양육모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조세현씨는 “매년 사진전을 하면서 영아일시보호소에 빈 침대만 가득하기를, 더 이상 이런 전시가 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기간, 스타들과 아기의 사진이 담겨있는 팸플릿을 구입할 수 있고, 판매 수익금은 아이들의 치료비와 수술비 및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사용된다. 문의 062-360-1630.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오페라 아리아·탱고·무용·가야금연주...

‘화요예술무대’ ‘남도소리 상설무대’ 프로그램 선정

광주문화재단 기획공연인 ‘화요 예술무대’와 ‘남도소리 상설무대’ 2012년 프로그램이 확정됐다. 관객은 지난해 작품을 공모, 운영자문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공연작을 선정했다. 공연은 모두 광주문화재단 소극장에서 열린다.

▲화요예술무대=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사하는 화요예술무대는 성악그룹 ‘이칸판파’의 ‘베르디의 리플레토와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2월7일) 공연으로 문을 연다.

이어 ‘폴클랑폴리스텐’의 ‘피타고라스의 음계’, 한국예술가곡보급연구회의 ‘봄맞이 한국가곡의

향연’(4월3일), 인카운터 타악앙상블 연주회(5월15일), 광주챔버스싱어즈 정기연주회(6월5일) 등이 공연된다.

그밖에 ‘7Miles acoustic&Electric grove’, ‘더 싱어즈’의 ‘세계민요와 함께하는 더 싱어즈’, ‘연우회’의 ‘편곡-너는 뭐니?’, ‘G&G 무용단’의 ‘아, 나는 결코 싫다, 아니 뭐고 싶고 날고 싶다’, ‘파고엘 탱고’의 ‘컬러&탱고’ 등이 무대에 오른다.

▲남도소리상설무대=다스름극악예술단의 ‘호, 의, 현, 상’(2월29일)이 첫 테이프를 끊으며 노해진 무용단의 ‘침향’(3월28일), 하늘다

래예술단의 ‘뉴 비전 21 대동한마당’(4월25일), 광주가야금연주단의 ‘가야금으로 세계를 두드린다-영화 애니메이션 이야기’(5월30일), 우리소리연구회의 ‘소리길을 찾아서’(6월27일) 등이 상반기 공연으로 예정돼 있다.

하반기에는 월드뮤직 그룹 ‘루트머지’의 ‘루트 아리랑을 노래하다’, 박선욱춤무용단의 ‘춤으로 전하는 내일’, 신윤수 가야금 작품 발표회 ‘시선과 응시’, 풍물연희예술단 ‘광대’의 ‘판타지’, 이정숙무용단의 ‘이정숙 춤고을’이 예정돼 있다. 문의 062-613-835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올해 첫 우리가곡부르기는 작곡가 정덕기와 함께해요

13일 호신대 카페 티브라운

광주전남우리가곡 부르기(회장 황선욱)가 2012년 첫번째 행사를 갖는다. 13일 오후 7시30분 호신대 카페 티브라운.

이번 1월 음악회의 초대 작곡가는 정덕기(백석대·사진) 교수다. 정 교수는 예술가곡을 비롯해서 오페라, 관현악곡, 합창곡 등 600여곡을 만든 한국의 대표적 작곡가다.

함께 배우는 가곡으로는 양성우 시인의 작품에 곡을 부친 ‘죽도록 너를 사랑하다’를 선정했으며 초청성악가 장선근씨 역시 정교수의 곡인 ‘시래기’를 선사한다.

눈길을 끄는 무대는 정교수의 아내인 백승희씨가 함께 하는 코너다. 백

씨는 자신의 시에 남편 정씨가 곡을 부친 ‘커피’를 직접 부를 예정이다. 다함께 부르는 노래는 ‘희망의 나라로’, ‘눈’, ‘사랑이여 어디든 가서’ ‘겨울강’ 등이다. 마지막 합창곡은 심후섭씨에 이수인씨가 곡을 부친 ‘외갓길’이다.

우리가곡 부르기는 매월 두번째 주 금요일 모임을 가지며 회비 1만원을 내면 간단한 먹거리와 차를 마실 수 있다. 문의 062-575-5999. 016-694-45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희망찬 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한 해 보내주셨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올 한해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고객님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3인이상) A코스 - 38,000원 B코스 - 33,000원 C코스 - 25,000원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신년 모임을 위한 떡국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외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